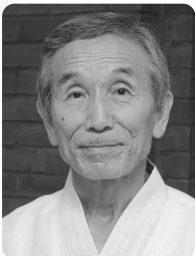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게 듣는다 _ 전통

예술한국, 문화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culture 'art

그 동안 공공기관이 주도해온 지원정책은 중장기적 특화시책 없이 개별적이며 일회적인 범주에 지나지 않았다. 예술의 저변확대나 향수층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특정예술의 활성화나 세계화 작업도 절실한 시점이다. 예술한국, 문화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우물 안의 구도를 지구촌의 지평으로 확대하여 한국예술의 개성과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한명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전통
- 동양방송 PD (66-75)
- 국립국악원 원장 (97-98)
- 서울시립대 문리과대학 교수 (85-04)

개인의 설계도에 따라서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는 일은 백번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인의 구도에 따라서 문화예술의 새 길을 내고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가기란 언감생심 난감하고도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예술의 '진전' (進展)이란 특정 설계도에 의한 견인도 필요하겠지만, 문화 예술계와 향수층의 의식수준이나, 사회적 환경, 시대적 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특정의 설계도나 의지를 무력화하거나 용도폐기 시키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실의 성패를 떠나서, 문화예술을 위한 나름대로의 소신과 방향과 비전은 직분상 여간 소중한 전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임기 동안 필자의 전문분야인 전통 예술분야에서 실천해 보고 싶은 몇몇 지표(指標)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설적 발상의 상황인식이다.

저간의 우리 사회는 맹목적이다 싶게 시류에 편승하며 부화뇌동하는 경향이 짙다. 한때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면 너나없이 영어교육의 열풍 속으로 달려들고, 한자(漢字)교육의 깃발을 올리면 누구나 그 쪽으로 우르르 몰린다. 국제화를 주창하면 노소 없이 국제화를 복창하고, 경제 가치를 주창하면 문화까지 예술까지도 오직 재화가치로만 재단하려 한다. 음악만 해도 풍향이 대중화 쪽으로 기울면 음악회마다 대중화를 표방하고, 퓨전이다 싶으면 거두절미 퓨전 쪽으로 줄을 서며 허겁지겁 이다. 시류의 홍수에 부류(浮流)하는 이 같은 부평초 같은 풍조에 역설적 균형의 추를 달고, 묵직한 닻을 내려서 의젓한 무게를 실어가는 게 자율성을 원형질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몫이 아닌가 한다.

둘째, 문화예술계의 거품을 걷어내고 알짜를 찾아 나서야 할 시점이다.

20세기 후반의 공연예술, 특히 관(官)주도의 행사들은 외화내빈의 소위 전시 효과적인 징후들이 강했다. 오늘의 공연예술계도 그 같은 시대적 타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없다. 공연을 위한 공연에 그치는 도식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분장을 벗기고 거품을 걷어내면 발효되

지 않은 빈 쪽정이에 불과한 내용들이 비밀비재하다. 저간의 예술풍토도 위선의 허울을 벗고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술의 옥석이 가려지고, 조화(造化)가 아닌 생화로서의 자생적 싹뿌리가 내려질 수 있다.

셋째, 보이지 않는 기본과 핵심을 챙기는 안목이 필요하다.

부지불식간에 문화예술계마저 상업주의에 몰들고, 자극적 감각주의에 기울고, 찰나적 미시적 속도주의에 매몰되면서, 뿌리를 보고 바탕을 보고 핵심을 보는 여유와 안목을 망실해가고 있다. 따라서 조건 반사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 오관(五官)에 느껴지는 대상, 단발적인 흥행성 행사, 재미와 관심과 뉴스의 표적이 될만한 예술 행위 등이 주류와 대세를 이루며 일반의 문화관념을 심히 왜곡해가고 있다.

이 같은 풍조 속에서 경륜 있는 예지로 농쳐서는 안 될 국면이라면,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예술발전의 기본과 핵심을 챙기는 일이라고 하겠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뜸이 들고 발효가 되어야 진가가 발휘되는 일, 재미도 없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거치고 마련해야 할 기반조성의 사안들, 즉물적이고 가시적인 영역에 차폐되어 희석되고 소외된 소중한 유·무형적 문화가치 등을 균형 있게 챙겨가는 일이 곧 그것이라고 하겠다.

넷째, 긴 호흡의 문화안목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속도의 시대라는 저간의 우리네 삶은 분시를 쪼개가며 사는 세상이 되었다. 분침과 시침에 예속된 우리의 일상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종종 걸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연히 호흡이 긴 문화의 사이클을 간취하기 힘들고, 거시적이며 일관된 문화정책의 틀을 정립하기가 어렵다. 일회성의 일년치기 문화예술이 명멸할 뿐 하나의 흐름과 사조(思潮)를 형성할만한 정책들이 발붙이기 힘든 풍토다. 미시적이고 분석적인 시각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거시적이고 종합적이며 일관성 있는 장강의 물줄기 같은 예술사조를 양성(釀成)해 가는 일 또한 긴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성실한 온고(溫故)와 법고(法古)의 자세가 중요하다.

어쩌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생물학적으로는 생성과 소멸의 우주적 섭리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는 문화발전의 공리(公理)랄 수도 있다. 모체가 없는 후생이 있을 수 없고 뿌리 없는 나무가 가능하지 않듯이, 과거에 대한 온고 없이 새로운 창조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우리의 풍토 속에서는, 특히 본말이 전도된 20세기적 역사의 굴곡 속에서는 온고의 대상이며 묘포가 될 전통문화가 적지 않게 거부되고 방기(放棄)되었다. 따라서 온고나 법고 없이 새로운만 추구하다보니, 수많은 지신(知新)과 창신(創新)의 문화예술들이 시행착오에 머물거나 사상누각의 사생아적 근사치에 함몰되기 일췌였다. 진부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참다운 온고와 법고의 과정을 거쳐서 창신을 도모하는 것이 첩경이요 정도라고 하겠다.

여섯째 전통예술의 세계화 정책이 절실하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주도해온 지원정책은 개별적, 안배적, 일회적 범주를 벗어난 적이 드물다. 중장기적 특화정책이 없었다. 예술의 저변확대나 향수층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못지 않게 특정예술의 활성화나 세계화 작업도 절실하다. 일례로 전통음악에서 종묘제례악이나 정가, 판소리나 씻김굿 같은 종목들은 국제무대에 나가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찬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레퍼토리들이다. 더구나 종묘제례악과 판소리는 유네스코가 지정해준 세계 문화유산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안방에서 자축만 했을 뿐, 세계적으로 알리고 키워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비전이 없었다. 한마디로 문화정책의 부재였다.

분명 몇몇 레퍼토리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는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다. 가부키하면 일본을 떠올리는 등식은 세계 속에 각인돼 있다. 이제 판소리나 종묘악 하면 한국을 연상하는 공식이 국제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 예술한국, 문화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우물 안의 구도를 지구촌의 지평으로 확대하며 한국예술의 개성과 특성을 극대화하는 일이야말로 대도무문의 묘책이다.